

성장지원펀드 출범식

2018.3.29.(목) 14:30

금융위원장 축사

2018. 3. 29

금 융 위 원 회

※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1. 인사말씀

□ 안녕하십니까.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.

- 혁신창업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성장지원펀드의 출범식에 참석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.
- 성장지원펀드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님, 유관기관 대표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.
- 그리고 성장지원펀드의 키 플레이어로 역할하실 운용사 여러분과 오늘 IR 준비를 하신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최정환 부사장님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

2.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혁신 과제

□ 정부는 '사람중심 경제'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일자리 중심경제와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-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의 관점에서 창업은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시급한 과제입니다.
- 하지만 현재 국내 창업생태계는 활력이 저하되고 있고, “창업-성장-회수-재도전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

* 창업률(창업수/기준기업수, %) : (중국) 41.0, (미국) 7.4, (한국) 9.0
GDP 대비 벤처투자금액(%) : (중국) 0.28, (미국) 0.37, (한국) 0.13
회수시장 내 M&A 비중(%) : (중국) 21.6, (미국) 93.7, (한국) 10.5

□ 이에 정부는 우수인력이 혁신창업에 도전하고, 혁신창업기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가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작년 11월 「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」을 발표하였습니다.

- 금융위원회는 「생산적 금융」의 관점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「금융분야 혁신창업 지원 3중 세트*」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

* ①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방안 ②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안 ③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

- 먼저 지난 3월 8일, 금융위원회는 창업가들이 실패경험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성공을 위한 자산으로 삼아 재도전에 나설수 있도록 「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방안」을 발표하였습니다.
- 두 번째로 혁신창업 생태계에 민간자금 중심의 성장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성장지원펀드가 오늘 출범합니다.
- 앞으로 담보자산이 부족한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「동산금융 활성화방안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

3. 혁신창업 생태계 내 성장자금(Growth Capital) 공급의 현재 모습

- 하나의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되고 스타트업이 유니콘*, 데카콘**으로 성장하기 까지 기업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*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기업, ** 기업가치 10조원 이상인 기업

- 우버(Uber), 에어비엔비(Airbnb)와 같은 글로벌 혁신기업은 벤처생태계로부터 공급*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중단없는 혁신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

* 창업초기(Seed)부터 성장단계별(Series A~E)로 연속적인 투자자금을 유치

- 이에 반해 국내 벤처투자는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성장단계마다 유연하게 자금공급이 연결되어 흐르는 선순환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.

- 기업의 연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고, 투자된 자금이 회수, 재투자되는 자금순환 과정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

□ 그동안 저희가 직접 방문하였던 창업현장에서도 벤처생태계와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.

- 혁신성장 간담회('17.10.19, 역삼동 마루 180)
 - ▶ 민코넷, "초기 창업에는 어느 정도 돈이 있지만, 창업초기 이후 기업에 돌아가는 자금은 부족하다고 생각"
 - ▶ 유니슨 캐피탈, "창업자금보다 성장자금이 부족"
 - ▶ 카이스트 ○○○ 교수, "정책금융의 risk taking을 통해 장기금융 및 민간 자금 유입에 대한 마중물 역할이 필요"
- 청년창업 콘서트('17.12.5, 디캠프)
 - ▶ 팀와이퍼, "기업 입장에서 VC의 투자도 유용하지만, 은행권 대출도 필요하며, VC 투자에 연동하여 정책자금이나 은행권 자금이 지원되면 효과적일 것"

- 벤처생태계에 창업자금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반면, 기업이 데스밸리(Death Valley)를 극복한 이후 추가 도약(Scale-up)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성장자금은 부족하다고 합니다.
-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유니콘으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혁신기업이 큰 규모의 성장자금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같은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.

< 국내 유니콘 후보기업 투자자 >

회사명	주요 투자자(억원)
우아한 형제들(배달의 민족)	중국계 VC(570)
비바리퍼블리카(송금앱 토스)	미국 페이팔 컨소시엄(550)
미미박스(뷰티 소셜커머스)	미국계 VC 등(1,340)

- 민간자금 중심의 벤처 생태계가 조성된 외국에 비해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아 자금의 규모가 작고, 운용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기업의 가치를 높이기보다 단기투자를 선호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.

* 벤처펀드 중 정책자금 비중('15년, %) : (미국) 12, (유럽) 21, (한국) 46

* 벤처펀드 평균 존속기간(년) : (미국) 14.7, (한국) 6.9

-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 오늘 출범하는 성장지원펀드입니다.

4. 성장지원펀드 운영방향

- 정부는 지난 1월, 「혁신모험펀드 조성·운영계획」을 발표하면서 혁신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원활하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창업초기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「혁신창업펀드」와 혁신기업의 성장·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「성장지원펀드」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.

- 성장지원펀드는 성장·회수에 중점을 두도록 한 설립취지에 맞게
 - ① 성장·회수단계에 맞추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고
 - ②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면서
 - ③ 역량있는 운용사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.

- ① 먼저 창업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한 혁신기업에 대해 대규모 성장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.

- 금년에는 2조원을 조성하여 스타트업이 중소,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필요한 설비투자, 외부기술 도입, 인수금융, 사업재편 등 다양한 성장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투자자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

- 출범 첫해에 축적된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여 '19년과 '20년에는 각각 3조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.

○ 기업의 투자 수요 뿐만 아니라 대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연계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하겠습니다.

- 이를 통해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 등에 '18년 3조원을 포함, 총 20조원의 대출 자금을 공급하여, 기업성장에 따른 연속적인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② 둘째로 벤처투자에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펀드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성과중심의 운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.

○ 운용사가 민간 출자자를 먼저 확보하고 정책자금은 부족자금을 보완하는 방식의 민간주도 출자사업을 도입합니다.

- 민간주도 출자사업에서는 운용사와 민간 출자자가 정한 출자조건을 최대한 수용하여 운용사가 원활하게 민간 출자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

○ 성장지원펀드 운영 전반에서도 운용사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.

- 기존에 출자기관이 결정하였던 의무투자비율, 투자기구, 보수체계, 펀드운용기간 등 주요 출자조건을 운용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○ 성장지원펀드에 참여하는 플레이어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입니다.

- 자금규모 확대를 위해 민간자금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민간 출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추가 투자수익(Upside-potential)을 얻거나 투자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- 운용사에 대해서는 성장지원펀드 설립취지에 맞게 후속 투자, M&A 등의 실적에 연동하여 수익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.

③ 마지막으로 성장지원펀드를 역량 있는 운용사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용사 선정기준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

- 운용사 업력, 운용규모 등 외형에 치우친 평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투자전략과 운용인력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운용사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.
- 투자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, 투자전략 실현을 위한 펀드출자 구성, 투자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운용인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.
- 이를 통해 역량있는 신생운용사에게도 펀드운용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5. 마무리 말씀

□ 「그릿(Grit)」의 저자 앤젤라 더크워스(Angela Duckworth)는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열정과 끈기의 조합인, 그릿*이 발견된다고 하였습니다.

* 성장(Growth), 회복력(Resilience), 내재적 동기(Intrinsic Motivation), 끈기(Tenacity)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로,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

- 다시 한번 성장지원펀드 출범을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 운영을 맡아주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,
- 조속한 시일에 성장지원펀드가 혁신창업 생태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아 열정과 끈기를 가진 창업가들의 꿈이 이 펀드를 통해 성취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

□ 감사합니다.